

TPA, 12월 가격 588달러로 인상

11월 4사 평균가격 583달러 기준 ... 4/4분기 가격협상 문제 없어

국내 TPA(Terephthalic Acid) 최대 생산기업인 삼성석유화학이 12월 TPA 가격을 톤당 588달러로 고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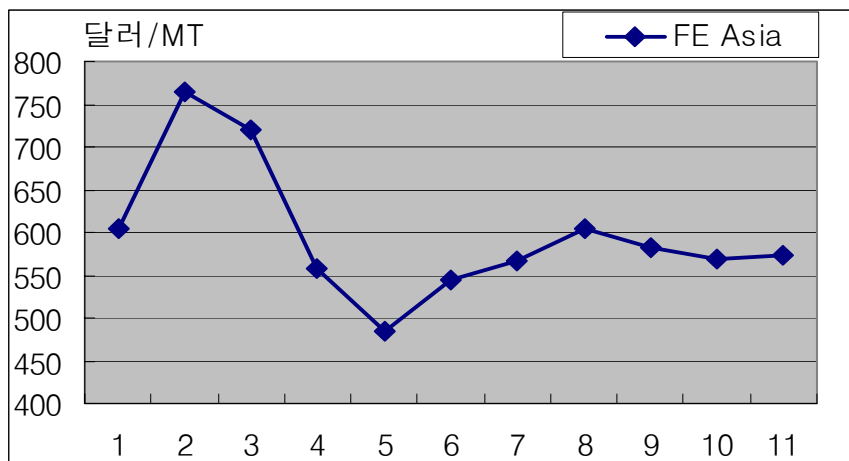
삼성석유화학 관계자는 “12월 YPC가 TPA 가격을 582달러로 고시했으며, BP 및 Mitsubishi Chemical, Mitsui Chemicals 3사가 590달러로 발표해 12월 TPA 내수 고시가격을 톤당 588달러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YPC는 11월 톤당 572달러로, BP 및 Mitsui Chemicals은 590달러, Mitsubishi Chemical은 580달러로 거래가격이 확정됐다.

YPC는 11월 거래가격보다 톤당 10달러를 인상해 12월 가격을 고시했고, Mitsubishi도 10달러 인상을 했다.

YPC를 비롯한 4사의 11월 확정가격은 톤당 583달러로 삼성석유화학은 11월 583달러를 기준으로 거래기업들과 협상했으며, 12월에는 톤당 5달러 인상된 588달러를 고시했다.

TPA가격추이(2003)



삼성석유화학을 제외한 TPA 생산기업들은 모두 관계사 구조를 가지고 있어 월별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지 않아 삼성석유화학의 거래가격에 따라 TPA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TPA 국제가격은 2월 FE Asia 톤당 763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반기에는 7월 566달러, 8월 605달러, 9월 583달러, 10월 570달러, 11월 574달러에 거래됐다.

삼성석유화학은 “3/4분기 가격협상 난항 이후 4/4분기 들어서는 화학섬유 생산기업들과의 가격협상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삼성석유화학은 11월4일 합작기업인 BP가 최근 상용화에 성공한 신기술을 이용해 서산공장 생산능력을 60만톤으로 확장기로 하고 본격적인 확장공사에 착수했는데, 2004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3/12/19>